

“다함께 땀 흘리면, 입시 스트레스 싹”

불법도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존재다. 특히 PC와 스마트폰으로 무한한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된 요즘, 청소년들 까지도 어둠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곤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와 함께 운동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농구·배구 등 다양한 종목 운영 자율성 부여...여학생도 적극적 “스포츠는 직접 즐겨야 재밌어요”

장마철 무더위가 잠시 자취를 감춘 16일 오후, 모든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자 저마다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속속 체육관으로 집결한다. 그리고는 각종 기구들을 꺼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고의 또 다른 하루를 알리는 스포츠클럽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양재고는 서울 여러 고등학교 가운데서도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농구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기는 학생들로 체육관과 운동장은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교내 스포츠클럽을 총괄 관리하는 김남청 체육부장은 “학기 상황에 따라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현재 농구 12명, 축구 25명, 배구 30명, 배드민턴 13명 등 많은 학생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남학생들은 물론 여학



양재고는 농구와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명성이 높다. 양재고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들이 16일 교내 체육관에서 연습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들도 적극적이다. 아침 등교 전과 자투리 점심시간, 방과 후를 모두 활용해 연습과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입시라는 큰 산이 존재하는 고등학교지만, 양재고는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스포츠를 즐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자율’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된다.

김 체육부장은 “사실 스포츠클럽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결국 아이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점차 스포츠의 재미를 깨달아가면서 누구보다 열

정적인 선수로 변해온 한다. 그간 볼 수 없던 동료애와 협동심도 생겼다. 학업 스트레스로 학교 오기가 싫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등교가 즐겁다고 한다”고 스포츠클럽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이처럼 활성화된 교내 스포츠클럽 가운데 양재고 체육교사들이 자랑스럽게 꼽는 곳은 농구클럽이다. 강남·서초 지역역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두주자 노릇을 하고 있다.

농구클럽 주장을 맡고 있는 3학년 김성환군은 “어렸을 적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클럽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주장을 맡고 있다”며 수줍게 웃고는 “현재 2학년 7명과 3학년 5명이 주중 3회 정도 모인다. 대회를 앞둔 때면 선생님께서 부탁드려 추가 연습

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구코트에서 땀을 흘릴 때면 입시 스트레스가 눈 녹은 듯 사라진다는 수험생 김군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인터뷰를 마쳤다. “고교 1학년 때 교환학생 신분으로 잠시 미국에서 지냈던 적이 있다. 그곳은 스포츠클럽이 의무교육처럼 빈틈없이 마련돼 있더라. 학생들이 최소한 종목을 즐기면서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사실 중학교 시절 주위에서 PC와 스마트폰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접하는 친구들을 여럿 봤는데 현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느낀 이유는 하나다. 스포츠는 직접 즐겨야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몹스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양재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9월 로드FC 055 대진 확정



정원희(왼쪽)와 에밀 아바소프가 9월 8일 대구체육관에서 끝내볼 로드FC 055 57kg 플라이급 맞대결을 펼친다. 사진제공 | 로드FC

정원희 vs 아바소프 화끈한 타격전 빅뱅

영건스 44 최우혁-소야트 대결도 후끈

끝내볼 로드FC 055에서 열릴 대진이 17일 결정됐다. 로드FC는 9월 8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리는 끝내볼 로드FC 055에서 정원희(27·KING DOM)와 에밀 아바소프(30·TEAM SABR), 최우혁(29·센지)과 소야트(26·팀 타이헌 향남)의 대진을 확정했다.

정원희는 입식격투기 출신 파이터다. 입식 격투기 전적은 9승 5패, 이중 5승을 KO로 따냈다. 킥복싱 베이스로 상대를 계속 압박하며 자신의 페이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타격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 난타전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에밀 아바소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파이터 특유의 강한 펀치력을 자랑한다. 2017년 9월에 열린 로드FC 042에서 장익환과 대결한 바 있다. 그라운드 기술은 부족하지만, 당시 장익환과의 타격전에서 앞서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먼저 열리는 끝내볼 로드FC 영건스 44에도 대진이 확정됐다. 최우혁과 소야트의 경기다.

최우혁은 킥복싱 베이스의 타격가다.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해 타격으로 경기를 끝낸다. 상대인 소야트는 정반대의 스타일이다. 키르기스스탄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강점인 레슬링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간다. 주특기인 레슬링 기술로 타격가인 최우혁을 어떻게 공략할지 기대되는 매치다.

로드FC는 9월 8일 대구체육관에서 끝내볼 로드FC 055를 개최한다. 메인이벤트는 ‘페더급 챔피언’ 이정영과 박해진의 타이틀전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최아승·김윤후 ‘V 스매싱’...매봉초 대회 3연패

남자 단체전 결승서 화순제일초 3-1 제압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

대전 매봉초등학교가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매봉초는 17일 전남 화순군 이용대체육관에서 벌어진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 초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화순제일초등학교에 3-1 승리를 거뒀다.

1경기에서는 이준휘가 제일초 이치호에 0-2(16-21 11-21)로 패했지만, 팀의 간판인 최아승이 2경기에서 김동진에 2-0(21-11 21-8), 김윤후가 정다환에게 2-0(21-7 21-13)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이어 4경기에서 조찬이 박정홍을 2-0(21-15 21-13)으로 꺾으면서 3년 연속 우승을 확정지었다.

매봉초는 초등부 배드민턴 전종의 강호다. 매년 우수한 유망주를 발굴해 한국 배드민턴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5학년인 김윤후와 최아승은 올해 초등학교 랭킹 1, 2위를 다투는 특급 유망주다. 둘은 지난 4월



대전 매봉초등학교가 17일 전남 화순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린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초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화순제일초등학교를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매봉초는 이 대회 같은 종목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의 이미지를 굳혔다. 화순 | 정지훈 기자 won@donga.com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9 주니어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이미 세계무대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손화수 코치는 “이번 대회 3년째 우승이다. 또한 올해에도 이미 많은 대회를 우승했다. 새 학기가 시작했을

때는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회를 거듭하고 자꾸 이기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배드민턴 자체를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후와 (최)아승이는 또래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이 있다. 윤후의 경우 초등학생들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점

프 스매싱을 구사할 수 있다. 스매싱 동작이 나오기에 연습을 시켰는데 본인의 것으로 잘 만들었다”며 “모두 잘 성장해서 한국 배드민턴을 이끄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승했으니 선수들과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한다”고 흐뭇하게 제자들을 바라봤다. 화순 | 정지훈 기자 stop@donga.com

경기결과

•남자 초등부 단식 8강=최명경(매원고) 2-1 추진(진광고), 이주현(광명북고) 2-1 이석찬(당진정보고), 김성재(월봉고) 2-0 최예복(전주생명), 유태민(서울체고) 2-0 이상현(진광고)
•여자 초등부 단식 8강=정희수(차양고) 2-0 이나린(영덕고), 유이연(광주체고) 2-0 방주영(창덕여고), 안세영(광주체고) 2-0 박도원(창덕여고), 정효리(충주여고) 2-0 정민(영덕고)
•남자 초등부 복식 8강=김덕영, 이원준(김천생명) 2-1 안윤성, 노진성(전대사대), 김동해, 윤보(월봉고) 2-1 정우민, 임우진(광명북고), 최성창, 인식현(매원고) 2-0 명승현, 최윤수(광명북고), 이석찬, 오민규(당진정보고) 2-0 추진, 추진(진광고)

•여자 초등부 복식 8강=김지연, 정희수(차양고) 2-1 김지인, 이경민(전주성심), 윤선주, 이현우(장곡고) 2-0 윤다현, 최서연(충주여고), 안세영, 유아연(광주체고) 2-0 서지인, 최효원(포천고), 김유정, 이혜원(전주성심) 2-0 정민, 이나린(영덕고)
•고등부 혼합 복식 8강=이강현(김천생명), 서유림(김천여고) 2-1 오성원(매원고), 이나원(영덕고), 이혁재(제주사대), 이예지(제주여고) 2-1 김해원(월봉고), 정희내(용화고), 이상현(진광고), 김지원(차양고) 2-0 박건희(전주생명), 강하늘(전주성심), 장정수(충주공고), 최서연(충주여고) 2-0 권민천(문수고), 박민정(범서고)

•남자 초등부 단식 8강=김태림(원주중) 2-1 임현빈(신상중), 이용희(아현중) 2-0 서준호(신상중), 김병재(대방중) 2-1 박승민(원주중), 한정욱(당진중) 2-1 이재호(신광중)
•여자 초등부 단식 8강=김민지(남원중) 2-0 고희진(제주여중), 김도연(범동중) 2-0 박주은(구남중), 김나현(연주중) 2-1 이은희(광주체중), 김민선(남원중) 2-0 박나경(충주여중)
•남자 초등부 복식 8강=조문희, 장준희(옥련중) 2-1 일관희, 유준서(안주중), 김하빈, 정민재(화순중) 2-0 오재혁, 김동우(원일중), 김태림, 박승민(원주중) 2-0 최세용, 맹정우(진광중), 김도윤, 현사원(정림중) 2-1 김영민, 박성우(화순중)

•여자 초등부 복식 8강=정유민, 임지윤(포천여중) 2-0 이지연, 고희주(전주성심), 김민지, 김민선(남원중) 2-0 오연주, 김민희(제주여중), 권지민, 최주원(남원중) 2-1 최경진, 김나현(연주중), 박나경, 이서진(충주여중) 2-0 박솔, 구서연(능곡중)
•중등부 혼합 복식 8강=유준서(원주중), 이주영(전주성심) 2-0 이송현(하안중), 최보라(능곡중), 한사람(도춘중), 정유빈(포천여중) 2-0 박철수(대방중), 서소영(밀양여중), 김하빈(화순중), 공여진(화순제일) 2-1 임관희(원주중), 고희주(전주성심), 김병재(대방중), 권하원(밀양여중) 2-0 김동윤(진광중), 최주원(남원중)

(17일)